



행복 방정식

행복은 힘이 약하고 불행은 힘이 세다. 불행이 행복을 만나기만 하면 심하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하늘로 피신해 갔다. 이에 제우스신은 “너희들이 불행을 피해 온 것은 좋으나 애타게 너희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엾으니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내려가거라” 명했다. 그런 까닭으로 세상에서 행복은 눈에 띄지 않고 불행만 보인다고 한다. 이솝의 행복방정식에 대한 해석이다.

고래(古來)로「행복」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요 간절한 소망이며 궁극의 의의여서, 행복에 이르면 가고 오고, 옹고 그르고, 좋고 싫고 등, 말이 없고 일이 없다고 했다.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 무슨 일을 하든, 다 행복의 바다를 향해 가고자 하는 생각이요 말이며 일이라 했다.

누군가 행복을 정의하기를 “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”라 했으니 어찌 현실의 눈으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겠는가.

이렇듯 누구나 바라는 행복이기에, 미국의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 (Paul Samuelson)이 생각해 낸 행복방정식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$$\text{행복(Happiness)} = \frac{\text{성취(Performance)}}{\text{욕망(Desire)}}$$

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분자를 키우거나 마음을 다스려 분모를 줄여야만 한다. 「성취」란 유한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, 인간의「욕망」은 끝이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스스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. “물건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지푸라기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”고 하는 말로서, 위 공식을 “불”과 연관 지어 재해석 해 본다.

행복의 조건을 흔히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.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조건에 따를 수 있다면 현실에서 분명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.

- ▶ 소극적 필요조건
 - ① 경제생활의 안정
 - ② 심신의 건강
- ▶ 적극적 필요조건
 - ③ 정신적, 육체적 발전 (자아의 성장 실현)
 - ④ 집단을 위한 떳떳한 구실 (존재 가치)
 - ⑤ 원만한 인간관계

부여 임천(林川)의 부자 상영부(尙英孚)는 마을 사람들이 급전을 필요로 할 때 돈을 빌려주는 일로 덕을 쌓았다는데(?), 실인 즉 선달그름이 돌아오면 뒤란에 나아가 집을 담보로 한 차용증서 더미를 불태워서 하늘로 오르는 연기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것이다. 3년이 지나고도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 빚 문서를 골라 불태우는 옛 선비의 즐거움은 위 행복의 조건 가운데 몇 번에 해당되는 것일까...

<김동일/소방기술사·오리엔트이엠씨 전무>

